



창원 의회 소식

제14호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CONTENTS



- 02 개회사
- 04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42회 제1차정례회 (2014. 9. 16~10. 10)
 - 제43회 임시회 (2014. 11. 7~11. 10)
- 12 예산심의 활동
- 18 행정사무감사
- 19 시정에 대한 질문
 - 제43회 임시회 (손태화 의원 등 4명)
- 22 5분 자유발언
 - 제42회 제1차 정례회 (김종대 의원 등 8명)
 - 제43회 임시회 (김우돌 의원 등 2명)
- 27 위원회 활동
- 3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33 건의안 및 결의안
- 40 언론 보도자료
- 55 의원 칼럼



창원시의회 의장 유원석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존경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풍요의 계절인 이 가을에 제2대 창원시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창원시의 독단적인 창원 새 야구장 입지변경 결정으로 인한 동료의원들의 단식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창원시의회는 개원 이후 첫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바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항상 신뢰와 믿음이 충만한 사회이길 바라며,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결여된 정책이나 시민의 뜻에 반하는 시정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냉정하게 지적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주요정책 추진 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창원시에 누차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창원 새야구장 입지변경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통합이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발표하기까지 창원시의회와는 그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에 먼저 보도된 창원 새야구장 입지변경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개최된 임시회에서조차도 무조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로 본질을 회피한 것입니다.

주요정책 추진 시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에 발표하고, 심사 직전에 통보하듯이 알리는 이러한 행태는 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기를 바라는 안일하고 오만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를 집행부 스스로가 저버린 것으로 앞으로 창원시의회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확실히 집행부를 견제해 나갈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창원시를 건설하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창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창원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재검토해야 할 사업,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내는 정책감사 및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창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선정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다 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창원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2014. 9. 16~10. 10) - 25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의회의장
- 제안이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비비, 기금결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창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 임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장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의 하부 조직으로 보아 이장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로 정한 이장·통장·반장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인원과 자격을 보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함.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장기근무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주는 안식휴가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연가일수, 공가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창원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그동안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평균 연령 84~8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장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면제규정을 조정하는 한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대상을 조정하여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2013년 11월 유료 개장되어 운영중인 해양솔라파크의 저조한 이용율 제고를 위해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사조례 폐지 및 통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탄력적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임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열악한 재정부담 완화 및 악취발생 저감을 도모하기 위함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불량출하자에 대한 제재, 시장시설의 용도지정 등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 조례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임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13. 12. 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일부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확대하고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완화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여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통합 전 3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창원시장
- 제안이유

노후화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 하여 기업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

- 발 의 자: 박춘덕 의원
- 처리결과: 채택
- 제안이유

-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편승하여 마산·창원·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한지 5년 여에 다다르고 있으나,
- 2014년까지 전국의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은 실패 하였고 통합 이후 구.창원, 마산, 진해시가 행정적·경제적 차등 편중이 심화되어 지역의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 이미 2013년도에 마산(합포구 이주영 국회의원)에서는 마산 분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이 계류중에 있으며 특히 진해지역의 주민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생존에 지장을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등을 고려할 때 통합창원시를 구 마산, 창원, 진해시로 분리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통합의 주체인 창원시의회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 간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통합 당시 3개지역 의회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의 의제마저 사문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를 분리(원상회복)키로 하였음.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주철우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을 그렇지 못한 도시와 평준화하기 위해 독자발전을 멈추게 하고 구. 창원지역민들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는 서로 상생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서로가 망하는 길임. 따라서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를 분리하는 것이 창원시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내 주민의 공동이익과 국가 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분리하기로 함.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

- 발 의 자 : 김종대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정책에 따라 출범한 통합창원시의 지방 교부세 특례 적용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창원시의 급격한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토록 국회 및 정부 등에 건의하는 것임.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이상인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정영주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본회의장에서의 폭력사태로 의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김성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함임

1. 명 칭 :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 위원명단 : 위원장 : 방종근 의원, 부위원장 : 김이근 의원

지역별	위 원 명 단	비 고
계	9 명	비 고
구.창원지역	김삼모, 방종근, 주철우	
구.마산지역	김이근, 이민희, 조영명	
구.진해지역	김헌일, 박춘덕, 이해련	





제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4. 11. 7. ~ 11. 10.) - 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 발 의 자: 박춘덕 의원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편승하여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한 지 5년 여에 이르고 있으며 통합의 주체인 창원시의회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 간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음.
- 그러나, 통합 당시 거쳐야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통합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확보를 결여 하여 물리적 통합에 대한 지역 간 대립과 이질적 요소들을 한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요인이 현실로 나타났음.
-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듯이 통합으로 인한 3개 지역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주민들이 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원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원상회복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구 창원·마산·진해지역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를 건의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심의 활동 》

구성개요

- 일 시 : 2014. 9. 16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 위 원 수 : 9명
- 안 건 명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고
노 창 섭	이 혜 련	박춘덕, 강호상, 노종례, 김삼모, 김종대 조영명, 강영희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 (2014.9.16.)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 (2014.10.6.)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 • 심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 계수조정 및 의결
- 제3차 회의 (2014.10.7.)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 • 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결과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출결산

(단위 : 원)

구분	징수결정액 ①	실제수납액 ②	수납 비율 (%)	미수납액 ①·②		
				소계	결손처분	이월
계	2,923,226,247,048	2,812,601,758,475	96.2	110,624,488,573	19,975,395,509	90,649,093,064
일반회계	2,191,832,179,138	2,413,466,575,792	97.8	48,365,603,346	7,917,500,940	40,448,102,406
특별회계	731,394,067,910	669,135,182,683	91.5	62,258,885,227	12,057,894,569	50,200,990,658

세출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①-②-③
2013년 합계		2,880,921,448,455	2,488,894,939,271	2,360,528,574,704	282,761,471,734	237,631,402,017
일반회계	2013년	2,173,427,568,990	2,001,815,084,935	1,916,074,152,105	191,529,179,645	65,824,237,240
	2012년	2,123,866,252,342	1,968,822,899,535	1,872,656,256,110	189,218,307,990	61,991,688,242
	증 감	49,561,316,648	32,992,185,400	43,417,895,995	2,310,871,655	3,832,548,998
특별회계	2013년	707,493,879,465	487,079,854,336	444,454,422,599	91,232,292,089	171,807,164,777
	2012년	694,442,634,998	516,820,272,167	480,579,403,614	94,052,364,465	19,810,866,919
	증 감	13,051,244,467	Δ 29,740,417,831	Δ 36,124,981,015	Δ 2,820,072,376	51,996,297,858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이 용		전 용		이 체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462	318,624,764,560	-	-	41	2,448,980,000	1,421	316,175,784,560
일반회계	1,454	317,097,993,560	-	-	39	2,434,413,000	1,415	314,663,580,560
특별회계	8	1,526,771,000	-	-	2	14,567,000	6	1,512,204,000

계속비 집행

(단위 : 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39	105,010,683,200	32	52,879,930,260	7	52,130,752,940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회계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0	1,903,421,000	1,834,157,746	1,834,157,746	0	69,263,254
일반회계	9	866,566,000	797,303,390	797,303,390	0	69,262,610
특별회계	1	1,036,855,000	1,036,854,356	1,036,854,356	0	644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규모

(단위 : 원)

기금수	전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지방채상환적립 기금 등 13개	111,194,111,494	△ 1,959,539,510	27,847,001,259	29,806,540,769	109,234,571,984

● 수 입

(단위 : 원)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139,041,112,753	5,988,056,670	336,250,000	57,000,000	111,194,111,494	2,785,403,324	18,680,291,265

● 지 출

(단위 : 원)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경비	예차금	차 입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37,097,432,583	17,095,712,569	10,000,000	430,919,900	107,290,891,814	1,269,050,000	11,000,858,300

2013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의 건

기금 규모

(단위 : 원)

기 금 수	2013년도말 조 성 액	2014년도 운영계획		2014년도말 조 성 액	증 감
		수 입	지 출		
지방채상환적립 기금 등 13개	103,693,663	41,080,217	54,259,648	90,514,232	Δ 13,179,431

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원)

기금명	2013년도말 조 성 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 성 액	비 고
		수 입	지 출		
통합관리기금	0	11,461,905	8,230,000	3,231,90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31,581,500	757,956	13,209,956	19,129,50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심의 활동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결정액	증 감	
			금 액	증 감 율
계	2,701,273,389	2,409,769,899	291,503,490	12.10%
일반회계	1,925,363,588	1,809,296,171	116,067,417	6.42%
특별회계	775,909,801	600,473,728	175,436,073	29.2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액	구성비				
총 계	2,701,273,389	100%	2,409,769,899	100%	291,503,490	12.10%
일 반 회 계	1,925,363,588	71.28%	1,809,296,171	75.08%	116,067,417	6.42%
특 별 회 계	775,909,801	28.72%	600,473,728	24.92%	175,436,073	29.22%
공기업특별회계	249,373,210	9.23%	215,961,179	8.96%	33,412,031	15.47%
기타특별회계	526,536,591	19.49%	384,512,549	15.96%	142,024,042	36.94%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률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액	증감률				
총 계	2,701,273,389	100%	2,409,769,899	100%	291,503,490	12.10%
100 지방세수입	620,724,000	22.98%	613,724,000	25.47%	7,000,000	1.14%
110 지방세	620,724,000	22.98%	613,724,000	25.47%	7,000,000	1.14%
111 보통세	595,724,000	22.05%	588,724,000	24.43%	7,000,000	1.19%
112 목적세	17,000,000	0.63%	17,000,000	0.71%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8,000,000	0.30%	8,000,000	0.33%	0	0.00%
200 세외 수입	646,486,235	23.93%	503,301,183	20.89%	143,185,052	28.45%
210 경상적세외수입	595,305,102	22.04%	464,384,117	19.27%	130,920,985	28.19%
220 임시적세외수입	51,181,133	1.89%	38,917,066	1.61%	12,264,067	31.51%
300 지방교부세	253,240,042	9.37%	245,759,155	10.20%	7,480,887	3.04%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7,434,394	7.31%	175,430,000	7.28%	22,004,394	12.54%
500 보조금	641,757,505	23.76%	614,878,197	25.52%	26,879,308	4.37%
510 국고보조금등	473,597,158	17.53%	451,013,209	18.72%	22,583,949	5.01%
520 시·도비보조금등	168,160,347	6.23 %	163,864,988	6.80%	4,295,359	2.62%
600 지방채	40,000,000	1.48%	30,000,000	1.24%	10,000,000	33.33%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1,631,213	11.17%	226,677,364	9.41%	74,953,849	33.07%

● 세출총괄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구성비
총 계	2,701,273,389	100%	2,409,769,899	100%	291,503,490	12.10%
일 반 공 공 행 정	151,699,412	5.62%	138,977,422	5.77%	12,721,990	9.15%
공공질서및안전	34,664,684	1.28%	33,720,125	1.40%	944,559	2.80%
교 육	50,303,639	1.86%	47,590,235	1.97%	2,713,404	5.70%
문 화 및 관 광	259,003,997	9.59%	248,615,556	10.32%	10,388,441	4.18%
환 경 보 호	257,933,131	9.55%	247,765,228	10.28%	10,167,903	4.10%
사 회 복 지	676,320,352	25.04%	617,799,622	25.64%	58,520,730	9.47%
보 건	35,888,267	1.33%	30,649,590	1.27%	5,238,677	17.09%
농 립 해 양 수 산	103,192,958	3.82%	93,790,614	3.89%	9,402,344	10.02%
산업 · 중소기업	62,944,829	2.33%	62,137,632	2.58%	807,197	1.30%
수 송 및 교 통	356,108,162	13.18%	216,809,944	9.00%	139,298,218	64.25%
국토및지역개발	310,816,667	11.51%	274,740,728	11.40%	36,075,939	13.13%
예 비 비	13,993,735	0.52%	19,786,010	0.82%	Δ5,792,275	Δ29.27%
기 타	388,403,556	14.38%	377,387,193	15.66%	11,016,363	2.9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 요

- 감사반 : 상임위원별로 구성
- 감사범위 : 2013. 5. 1. ~ 2014. 6. 30.
- 감사기간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2014. 9. 17.(수) ~ 9. 25.(목) - 9일간
 -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2014. 9. 17.(수) ~ 9. 25.(목) - 9일간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2014. 9. 17.(수) ~ 9. 25.(목) - 9일간
 -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 2014. 9. 17.(수) ~ 9. 25.(목) - 9일간
 - 도 시 건 설 위 원 회 : 2014. 9. 17.(수) ~ 9. 25.(목) - 9일간
- 대상기관 : 담당관, 실, 국, 사업소, 센터, 보건소, 구청, 소방본부,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 지적사항 집계표

위원회명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319	310	9	
의 회 운 영 위 원 회	4		4	
기 획 행 정 위 원 회	46	41	5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92	92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97	97		
도 시 건 설 위 원 회	80	80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 문화 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14. 11. 10.(월)10:00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작은 인사(국장 이상)와 조직개편에 관하여**

답변 통합이후 4년 동안 서기관급 이상 124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공로연수, 경상남도 전출 등으로 지난 4년간 4급 이상이
총 40명의 결원은 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떠난다든지 경상남도로 전출로 인한 결원
직의 충원 및 승진 인사에 따른 승진자 배치 등으로 총 124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원 1명이 발생하면 3명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이
런 셈입니다. 승진으로 인한 전보인사의 경우 1명의 결원발생 시에 최소한 아무리 적게
해도 2명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경우 30명 남짓한 한정된 인원으로 매년 상하반기 퇴직
에 따른 결원충원, 승진자는 구청·사업소로 하향배치 및 본청 전입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사시스템상 불가피한 점도 있으며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2년 내지 3년 순환전보 기한을 설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속 노력 하겠습니다



손 태 화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양덕, 봉암동 지역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재해지구지정)

질문 양덕배수장은 수문개폐와 펌프가동이 일정한 수위에 달하면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자동
답변 운영시스템이지만 비상시에서 근무자가 상황에 따라서 수동으로 조작운영하기도 합니
다.
양덕봉암동 일원 침수방지대책을 위해서 8월 22일 봉암지구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
역으로 환경부에 신청해서 9월 29일 환경공단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서 현
지실사를 하여 금년 11월 5일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로 선정되어 하수도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양덕, 봉암동 지역 침수지역 하수로 정비 중점관리지역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4조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양덕봉암지구에 대해서 지난 8월에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심의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공고를 11월달에 할 계획에 있으며 지정공고가 되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환경부의 예산지정 또는 지원을 감안했을 때에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마산합포구 서성동 집결지 활용방안

답변 우리시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2013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정책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공원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그렇게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듣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산 문화원 내 마산 영화전시관 활용에 대해

답변 우리 영상자료원에 소장된 자료들도 얼마만큼 희귀성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우리지역에 영화자료들이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 자료의 가치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문화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질문 로컬푸드 사업 추진실적 및 방향

답변 금년에 북창원 농협에서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리고 동읍농협에서 1개소를 개장 준비 중이며 예산지원은 북창원농협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동읍농협에는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마산합포구 진동농협과 남창원 농협 등에서 직매장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로컬푸드 관련 예산은 거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에 5천만원, 로컬푸드 장터 지원에 3천만원, 로컬푸드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으로 500만원 등 총8,500만원을 편성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컬푸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직매장을 더욱 확대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창 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질문 중앙역세권 상업용지 축소 관련

답변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는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그간 상인들로부터 면적 축소 요구를 받고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 공감하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 공사로 하여금 면적 및 유치업종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업용지 축소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고, 상업용지 축소 조정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야구장 입지 변경 타당성 등

답변 연고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문서로 활자화된 것 약정까지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창원시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유치라든가 관광산업이라든가 등등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신뢰도가 붕괴되었을 때 과연 우리시를 믿고서 자본을 투자하고 관광산업이라는 게 원래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투자를 할 사람이 잘 나타나겠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39사단 부지에 관하여

답변 39사단 군부대 주둔 역사는 1981년 향토사단으로 개편되어 가지고, 2007년 11월 제2작전사령부로 예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현 부대 및 이전지 주둔 규모는 군사 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상세한 규모 및 인원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다만 사업시행 중인 부지면적은 사단부지가 129만 제곱미터이고 이전지역은 505만 제곱미터입니다.

부대이전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와 개발 관련 등에 관해서는 개발부지에 대한 개발방법 및 방향 등에 따라 많은 차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후 부지개발 완료 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익 발생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투자하거나 현금 또는 조성된 토지를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개발이익 발생 시는 수혜는 우리 창원시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주둔지였던 사회근린공원 일부 약 8만평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제42회 창원시 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4. 9. 16.(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경제복지문화
여성위원회)

창원시 새로운 자원발굴 노력 촉구 (2014.9.16.)

창원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새 자원발굴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촉구한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는 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창원시는 통합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로 받던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규정 기간이 만료 되어 수백억 원의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3년간 한시적으로 경남도의 도세 징수액의 6.2%를 정률로 받던 소방재정보전금(2013년 243억 원) 지원도 중단된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새로운 자원마련을 위한 세원관련 법령과 제도 검토 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김삼모 의원
(경제복지문화
여성위원회)

가로수 관리 정책 정밀 진단해야 (2014.9.16.)

성산구 상남·사파동 일대 자전거 도로 실태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가로수의 뿌리가 원인인지, 바람이 불어 가로수 뿌리가 흔들려서인지 투스콘 포장에 깨지는 등 전면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수령이 오래된 일부 가로수의 경우 뿌리가 위로 솟아있는 곳도 있으며 일부 구간은 땅 속 깊이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해 바람에 흔들리면서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가로수를 보존하는 방안과 변경하는 방안, 투스콘 포장 대신 재보수가 용이한 보도블록으로 설치하는 등의 전면적인 진단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창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정 펼쳐야 (2014.9.16.)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이러한 조직과 기관에 문제가 있어 구조조정 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순기능이 있는 정책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의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추진 한다면 그 사업과 정책은 실패한다. 따라서 시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원이나 재단 등의 설립을 위해서는 의회와 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서로간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분 자유발언



마산영화자료관 확장 이전을 제안 (2014.9.16.)

마산종합운동장 내 마산문화원에는 '마산영화자료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영화자료 수집가인 이승기 선생께서 70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자료들로 꾸며져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필름 38편, 시나리오 51권, 포스터 3,436매, 홍보용 전단 5,704장, DVD 1,200편, 비디오 3,900편, 영화 잡지 2,400권 등이 있어 등 문화적으로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소중한 자료가 작은 공간에서 홀대를 받는다면 우리 스스로 문화적 문외한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마산영화자료관이 있는 곳은 너무 좁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옥 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대화와 타협, 상생의 협력정신으로 (2014.9.16.)

지난 6·4 지방선거 후 오랜 갈등과 반목을 접고 서로 화합하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지난 4년간 통합 창원시의 제1기 의회를 보면서 통합 창원시 명칭, 청사위치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지역이기주의로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을 겪어 왔으나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이라는 당위성과 후세들에게 희망찬 창원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회생을 감수했다. 창원시는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협력정신으로 돌아와 지역균형발전과 희망찬 창원의 앞날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진해야구장 변경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독재다 (2014.9.16.)

진해야구장 입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은 기관상호 존중주의를 부정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야구장을 그렇게 마산으로 가져가고 싶었다면 진해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진해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 및 협의의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진정으로 108만 통합시의 발전과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역주민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졸속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 수 명 의원
(환경해양농림
축산위원회)

제42회 창원시 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10. 10.(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
축산위원회)

창원시보 발행 월2회에서 1회로 (2014.10.10.)

창원시는 매월 2회에 걸쳐 ‘창원시보’를 발행한다.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9월25일 현재 23만 부를 발행하지만 창원시 전체 가구 수가 약 41만 세대이므로 가구 수 대비 약 52%정도 밖에는 시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또 매월 2회 발행하다보니 배부를 맡고 있는 이웃통장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2회 발행하는 시보를 월 1회 발행으로 줄이고, 대신 제작부수를 늘려 전 세대에 배부하여 시보를 받아보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지면을 늘리더라도 열심히 봉사하는 시민들과 우수 공무원들을 널리 알리는 ‘창원시보’가 되길 바란다.



이 희 철 의원
(경제복지문화
여성위원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적극적 대응 (2014.10.10.)

경상남도 서부권 청사는 지난 1월 서부권 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4개 실국 진주 이전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경남인재개발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도 동반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민의 집은 재정건전화 및 방문자가 적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현재 경남도에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창원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등 손실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처 등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경남도와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게 생길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 창 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대 진출입로 통행료 철회해야 (2014.10.10.)

지난 1월10일 개통한 국대도 25호선 창원대 진출입 도로에 대해 현재 창원대학교에서 학생의 안전 및 학교 학습, 연구권의 보호명목으로 안전부담금(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주민을 대표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 안전부담금 징수 대신 교내 속도제한 및 교통시설의 추가 설치 등으로 각종 불안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출입 도로는 대학교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된 것인 만큼 통행료를 받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창원대학교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은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안전부담금 징수 철회를 검토해 주고, 창원시도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5

분 자유발언

창원문화재단 활성화에 대하여 (2014.10.10.)

통합 창원시 출범 후 겪었던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젠 ‘문화가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문화재단인 창원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창원문화재단의 사업에서 한층 벗어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 꼭 필요하며 더 나아가 창원문화재단을 통한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창원문화재단은 기획공연 및 전시유치만을 위한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특화사업을 개발해 활기차고 신명나며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 상 인 의원
(경제복지문화
여성위원회)

소통과 상생의 노력을 촉구하며 (2014.10.10.)

통합 창원시의 3개 지역이 이질적인(역사적, 출신지간, 계층간) 도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화합하는 상생의 지방자치 의식과 균형잡힌 통합형 정치 리더십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창원시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등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행동력을 보여야 한다. 이제 의회도 초대 통합 당사자들이 갖고 있던 통합의 원죄에서 탈피해 지방자치 혁신은 단체장이나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상호 협력하는 행정을 기반으로 지역적, 이념적인 호트러짐과 상관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해 창원시의 미래 100년을 도모하는 토대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



김 종 대 의원
(경제복지문화
여성위원회)



제43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11. 7.(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우 돌 의원
(환경해양농림
축산위원회)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촉구 (2014.11.7.)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에 개장한 팔룡동 농산물도매시장과 2002년 개장한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19년째 운영 중인 팔룡동 농산물도매시장은 동읍, 대산, 북면지역 농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우수한 농산물 출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시설의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팔룡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접근성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39사단 부지 세부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송 순 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무상급식 차질 없이 시행 되어야 (2014.10.10.)

경남도교육청은 2015년에는 급식을 더 확대하여 올해보다 100억 원을 더 늘린 2,438억 원을 투입하여 756개 학교 28만5,632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식품비 804억 원(도 322억 원, 시군 482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1,643억 원(식품비 482억 원, 급식운영비 1,161억 원)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해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도교육청은 월권이라며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경남도가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아 아이들의 급식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엄연히 경남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한 은 정 의원
(경제복지문화
여성위원회)

무상급식 보조금 계속적 지원 촉구 (2014.10.10.)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제도는 가난한 아이, 부자 아이 구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별다른 상처를 주지 않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은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인 만큼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누구도 소외됨 없이 균등해야 하므로 교육의 일종인 급식도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차별 없이 편 가르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제42회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4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 ◎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 9.25일 1 일간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사항 4건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 ◎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제43회창원시 의회(임시회)의사일 정을2014.11.7.~11.10(4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 ◎ 제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 위원회 에서 44회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2014.11.25.~12.19(25일간)개최하기로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제42회 창원시 의회(제1차정례회)기간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건 2013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건,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기 금 운용 계획변경승인의 건,2014년도제1회 추가경 정 세입 · 세출예산안 을 원안가결 ▷창원시 통. 리. 반 설치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창원시 안 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2014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 가결 하였다.
- ◎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 9. 17. ~ 9. 25까지 9일간 기획행정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건의사항 5건, 처리 요구 사항 41건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 하였다.

위원회 활동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기간 중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창원시 시립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가결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 중 9.17.~9.25.까지 9일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정처리요구 92건을 채택하였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전수명)는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창원시 악취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 중 9. 17.~9. 25까지 9일간 환경해양농림축산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97건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또한,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창원시 관내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남저수지, 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지를 현장방문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 중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건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 9. 17.~9. 25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요구사항 80건 채택의 건 원안가결 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 제42회 제1차의회 정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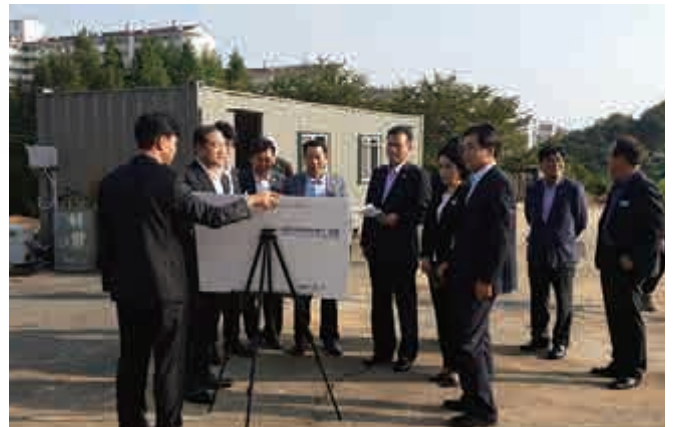
2 의장단 기자회견



3 2014년 생활 자전거타기 대행진



4 진해구 용원주민 운동장 현장 점검



5 제20회 진해축구연합회 장기 축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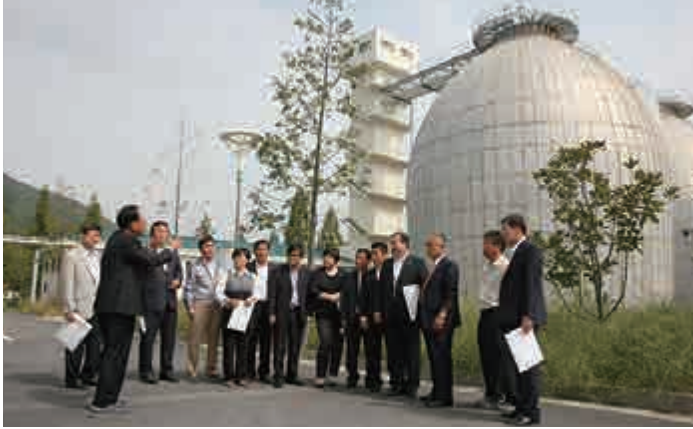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 | |
|----|----|
| 1) | 2) |
| 3) | 4) |
| 5) | 6) |
- 1) 제42회 제1차정례회가 2014.9.16~10.10(25일간)개회되었다 제1회 정례조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 2014년도제1차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처리하였다.
 - 2) 9월 16일 제42회 정례회 오후2시경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2개를 투척한 돌발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였다
 - 3) 2014년 9월 20일 창원시 생활자전거 타기 실천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유원석의장,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 노창섭의원, 한은정의원, 이천수의원, 조영명의원이 참석하였다
 - 4) 제42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기획행정 위원회(위원장 정쌍학)에서는 진해구 용원 주민운동장 및 공유재산 현장점검을 하였다.
 - 5) 2014.09.27 제 9회 무학중데이 소주배 및 제 20회 진해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유원석 의장, 김성일의원, 김현일의원, 이해련의원, 박춘덕의원이 참석하여 격려 하였다.
 - 6) 9월 16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및 2014년도 1차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으로위원장 노창섭의원 부의장 이해련의원 선출되었다.



1 덕동 하수처리장 현장 의정활동



2 전의원 간담회 개최



3 제6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4 제15회 진해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5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방문



6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1)	2)
3)	4)
5)	6)

- 제42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환경해양 농림축산 위원회(위원장 전수명)는 하수도관리사업소 덕동 하수처리장 현장 방문하여 하수처리 과정을점검 하고 하수 수질 상태를 확인 하였다
- 10.1.일 제42회 제1차정례회기중 전의원간담회 를 개최하여 주요안건 심의 및 의회 본회장 계란 투척 사태에 대한 집행부 언론보도대응에 대한 책임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의논 하였다
- 10월11일 제4회 재향군인회 통합한마음 체육대회 유원석의장, 김종대의원, 공창섭의원, 김장하의원, 정영주의원, 조영명의원, 김우돌의원, 노창섭의원, 주철우의원,이희철의원이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 10월12일 제15회 진해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유원석 의장, 전수명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김현일의원, 박춘덕의원, 이해련의원, 이치우의원이 참석하여 격려 하였다
- 10월14일 인천광역시 남구 전의원(장승덕 의장)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 방문하여 우수행정사례발굴 및 의정활동교류등을 비교시찰 하였다
- 10월14일 제18회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늘푸른 전당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유원석의장, 정영주의원, 김장하의원, 김삼모의원, 공창섭의원, 강영희의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 진해구 제항초등학교 학생 의회 방문



2 새마을운동 44주년(새마을의 날) 기념식



3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



4 제14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5 제13회 창원단감 축제



6 도교육감 의회 방문



- | | |
|----|----|
| 1) | 2) |
| 3) | 4) |
| 5) | 6) |
- 10월 15일 진해구 제항초등학교 5,6학년생 40명이창원시 의회를 견학 방문하여 모의 의사 진행을 했다
 - 10월 16일 새마을운동 44주년(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2014년 창원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에 유원석 의장 외 시의원님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 10월 23일 제18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경로위원장잔치가 진해구민회관에 유원석 의장 김하용, 부의장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김현일의원, 이혜련의원, 배옥숙의원이 참석하여 축하 하였다.
 - 10월 24일 제14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가 마산항 제1부두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유원석 의장 및 시의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10월 25일 제13회 창원단감축제가 북면온천관광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유원석 의장,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 김우돌의원, 김장하의원, 김삼모의원, 김순식의원, 김이근의원,이천수 의원이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11월 6일 도교육감(박종훈)창원시 의회 방문하여 2015학년도 학교급식예산이 편성될수있도록 당부하였다.

창원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연장 건의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0. 7. 1. 마산·창원·진해시를 통합한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통합후 4년여 이상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통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통합 후, 시민 화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시적이고 소액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통합 무용론과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통합 전 기준 재정부족액을 통합창원시에 그대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보통교부세 적용 특례를 시행키로 하였으나 특례 적용의 일몰시점을 단기인 4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특례받은 보통교부세가 2015년부터 연 600억원(4년 평균의 예) 정도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재정수입은 급감하는 반면, 창원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정책에 따라 통합한 창원시가 미 통합 지방자치단체 보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지방교부세 적용 특례 기한을 연장해 재정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지역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창원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통합에 따른 창원시의 지방교부세 축소와 재정수입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건의한다.
2. 국회와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 시책에 따라 통합된 창원시에 대하여 추가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적용 기한을 최소한 2020년까지 연장하는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건의한다.

2014. 10. 10.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편승하여 마산·창원·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한지 5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시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여 있지만 태생과 성장 과정이 길게는 수백 년에서 짧게는 30여년 이상 독립·독창적으로 발전해 온 탓에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통합인센티브를 통한 획기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 없이 3개 시 의회의 의결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 절차상 반드시 거치기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통합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확보를 결여하여 물리적 통합에 대한 지역 간 대립과 이질적 요소들을 한 기준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예견 되어져 왔습니다.

통합의 주체인 창원시의회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 간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통합 당시 3개지역 의회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였으나 통합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편중은 갈수록 심화됨에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진해구민의 여망은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를 분리(원상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듯이 통합으로 인한 3개 지역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주민들이 원상태로 분리를 원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원상회복의 의무와 책임이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통합을 주도했다면 통합후의 주민 만족도와 통합시의 성장과 균형발전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통합시 발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함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균형발전은 힘의 논리로 무너졌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문제점으로 통합창원시장과 진해출신 시의원의 지역발전 분쟁으로 현역 시의원의 구속이라는 정국 아래에서는 더 이상 통합으로 함께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행정조직의 중첩현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의 만족도는 통합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 되었다면 더 이상 통합의 유지는 불가능 하며 진해 주민의 행복만족도는 최하 수준이며 삶의 질 하락과 지역발전 저하를 더 이상 진해주민의 고통으로 감내하는 것은 아니되며 정부가 직접 통합 갈등의 원인분석과 통합창원시에서 진해시분리 원상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통합 정신인 호혜와 지역 균형발전도 지역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묵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의 이번 분리결정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통합이 졸속이며 무계획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2011년 11월 4일 통합 창원시를 창원·마산·진해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창원시 의회의 건의서(국회,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창원시에기제출)와 2013년 4월 22일 분리 건의안이 창원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제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창원시의회는 5년 여간의 통합 시정운영 결과와 지역 민심에 비추어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를 분리하는 것이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역내 주민의 공동이익과 국가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합치된 의사로 건의 하오니 조속히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10.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촉구 건의안

마산·창원·진해시는 인접하여 있지만 길게는 수 백 년에서 짧게는 30여년 이상 독립·독창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탓에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통합인센티브를 통한 획기적지역발전과 주민복지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2010년 7월 1일 전국 최초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주민투표 없이 3개 시 의회의 의결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 한지 4년 2개월이나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소지역 우선주의로 인해 지역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화합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레바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가야 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또한 새 야구장 위치 선정문제로 서로에만 켜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이후 우리 창원시의회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 간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통합 창원시의 발전 시너지로 순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지역 우선주로 인해 통합 창원시의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한 치의 양보가 없어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 반목이 커져갔습니다. 나아가 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정된 현안문제마저도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또 다시 변경되는 등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를 분리(원상회복)키로 하였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치유할 수 없고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듯이, 정부가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의 이유로 내세운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편적 형평성 실현이 내재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통합 이전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구마산, 진해시는 39.8%, 30.7%로 전국 평균(53.6%)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구 창원시는 5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 경제적으로나 행정적



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나 현재 2014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39.8%로 아주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재생이라는 명목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구.창원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복지에 산 외에 대형 사업은 찾아 볼 수 없고, 통합이전 쉽게 해결하던 생활 민원 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창원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상실감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껍데기를 덧 입혀,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을 그렇지 못한 도시와 평준화하기 위해 발전을 멈추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더 이상 구. 창원 지역민들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는 서로 상생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서로가 망하는 길임으로 분리 결정은 감정적 선택이 아닌 순리이자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통합이 졸속이며 무계획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2011년 11월 4일, 그리고 2013년 4월 22일 통합 창원시를 창원·마산·진해시로,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로 분리하자는 창원시 의회의 건의서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창원시의회의는 4년 2개월간의 통합 시정운영 결과와 지역 민심에 비추어 통합 창원시에 서 구. 창원시를 분리하는 것이 창원시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내 주민의 공동이익과 국가 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합치된 의사로 건의 하오니 조속히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10.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편승하여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한지 5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 창원·마산·진해시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여 있지만 태생과 성장 과정이 길게는 수 백년에서 짧게는 30여년 이상 독립·독창적으로 발전해 온 탓에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를 통한 획기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 없이 3개 시 의회의 의결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 당시 거쳐야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통합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확보를 결여하여 물리적 통합에 대한 지역 간 대립과 이질적 요소들을 한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요인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의 주체인 창원시의회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 간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통합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였으나 통합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편중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듯이 통합으로 인한 3개 지역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주민들이 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원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원상회복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통합을 주도했다면 통합 후의 주민 만족도와 통합시의 성장과 균형발전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통합시 발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함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균형발전은 힘의 논리로 무너졌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문제점으로 통합창원시장과 진해출신 시의원의 지역발전 분쟁으로 현역 시의원의 구속이라는 정국 아래에서는 더 이상 통합으로 함께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행정조직의 중첩현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져 주민의 만족도는 통합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 되었다면 더 이상 통합의 유지는 불가능 하며 진해 주민의 행복 만족도는 최하 수준이며 삶의 질 하락과 지역발전 저하를 더 이상 진해주민의 고통으로 감내하는 것은 아니되며 정부가 직접 통합 갈등의 원인분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통합 정신인 호혜와 지역 균형발전도 지역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묵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국령 스코틀랜드가 자기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갈등을 해소하였듯이, 이에 통합 창원시도 지역적 반목과 배타적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창원 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별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표출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반대가 우세하다면 정부가 나서 분리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찬성이 우세하다면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접고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치러야 할 홍역이라면 지금 바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끓아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차선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4. 11. 7.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9월16일~10월10일까지 25일간 세차례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제42회창원 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10일까지 25일 간의 회기로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5분 자유발언, 시정에 관한 질문, 안전심사 및 의결,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으로는 이상인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발의한 '창원시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정영주 의원(반송·중앙·웅남동)이 발의한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등 모두 23개 사안이며 안전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915억 원이 증액된 2조 7,0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61억 원, 특별회계는 1,754억 원이 증가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공창섭 의원(봉림·용지동)과 이희철의원(봉림·용지동)을 선임했다.

이어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26일부터 10월7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활동을 펼친다.

10월8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펼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10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의사 일정을 마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 등이 내실 있게 집행됐는지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위치에서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등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원석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불요불급 및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성 사업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소식 제14호

단감구입, 복지시설에 전달 '훈훈!'

농가도 돕고, 사랑도 실천하고

언론보도
자료

시의회는 최근 단감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들을 돕기 위해 단감 100박스를 직접 구입해 일부를 복지시설에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농민들이 본격적인 단감 판매철을 맞았지만 가격대가 낮아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는 단감 기부를 통해 지역 사랑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고자 마련됐다.

유원석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사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나눔에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지속적인 사람나눔 행사를 펼쳐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지역 농가를 찾아 각종 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하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개선점을 찾는 등 지속적인 지역 사랑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창섭

위원 9명 선임...부위원장에 이해련 의원



노창섭 위원장



이해련 부위원장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가운데 창원시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창섭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이, 부위원장은 이해련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을 선임했다.

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개최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제1차 예결특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박춘덕 의원(의회운영위원회), 강호상·노종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김삼모·김종대 의원(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조영명·강영희 의원(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노창섭·이해련 의원(도시건설위원회) 등 9명의 예결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노창섭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특위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로 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결특위는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0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예결특위는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0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연구회, 우수 직매장 견학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 파악



시의회 로컬푸드 연구회가 최근 창원지역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직매장과 모악산 로컬푸드 직매장을 견학했다.

연구회는 직매장을 방문해 로컬푸드 직매사업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와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실태를 파악했다.

완주군의 경우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와 주민들의 건강한 밥상,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현해 국내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로컬푸드 연구회 노창섭 대표의원은 “창원시의회는 전국의 로컬푸드 우수 직매장 견학을 통해 창원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해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컬푸드 연구회는 앞으로도 국내 선진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를 꾸준히 견학 한 후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체계 및 직거래 매장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다.

이어 연구회는 학교(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로컬푸드 정책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구회는 노창섭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이옥선·김동수·김석규·김영미·배옥숙·주철우·한은정·이치우·이천수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일까지 25일간 열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 984건 분석



시의회는 지난 9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열린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청과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도 예산집행상황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각종 민원처리 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지적보다는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기간 중 시의회는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총 984건의 자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개선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했으며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했다.

전체 의원 43명 중 초선 14명, 재선 12명, 3선 13명, 5선 4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대다수 의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초선의원은 물론 재선 이상 의원들도 통합 창원시 2기 시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창원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각자의 역량을 선보이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지역구 활동이 없는 시간이면 대부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예산안 심사에 몰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분석적이고 심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사전에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사실을 시각화하여 제시했다.

제2대 창원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 한 몫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잘못된 시정 방향을 바로 잡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등 굵직굵직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데 분주했다.

유원석 의장은 “창원시는 지적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달 16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 10일 제3차 본회의로 열렸으며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의결됐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희망하며...



박춘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지난 4년 간 통합 창원시의 제1기 의회는 통합시의 명칭, 새로운 청사위치, 통합상징물, 새야구장 입지 등 주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한 치의 양보 없는 지역이기주의로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 반목을 겪어 왔으나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이라는 당위성과 후세들에게 희망찬 창원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수하였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창원시장이 선출되었고 또 109만 창원시민을 대의하는 4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이제 통합창원시 제2기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갈등과 반목을 접고 서로 화합하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가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전임 창원시장이 스포츠를 통한 시민통합을 위해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의 연고지를 창원에 유치하면서 창원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새야구장의 입지를 옛 육대부지 정하였고, NC에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미 입지선정에 따른 용역비가 투입되었고 국·도비, 시비, 용역비 등 총 5백억원 이상이 배정되어 시작된 사업에 대하여 새 시장이 민의의 전당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발표하였다.

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시장이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의회의장에게도, 의회 의장단에게도, 진해지역 도·시의원에게도, 하물며 진해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놓고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입지변경을 발표 하는 것은 화합의 정신으로 이제 막 출범하는 제2기 의회의 상생협력 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장은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의 결정에 앞서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해구민들을 상대로 열기로 한 입지변경관련 설명회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NC는 향후 25년 간 야구장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운영권, 부대수익 사업권, 광고, 식·음료 판매권, 야구장 명칭, 주차장 운영권리, 임대 및 이벤트 등 야구 외 수익 사업, 유료 입장 관중 수에 따른 임대료 책정 등 가히 노예 수준의 계약을 따내었고, 이로 인해 새야구장의 입지를 옛 창원·마산·진해의 3개 지역이 서로 유치하려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낙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C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의 기여도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팀 구장의 건립을 보면 연고지역에 300~500백억 가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볼 때 NC측 기업의 도덕성을 볼 수 있다.

2018년 목표로 하는 새 야구장은 창원시가 NC구단과의 협약조정, 국비 확보,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예산심의, 특정지역의 종합 운동장을 허물고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동일 지역에 또다시 3천억 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 운동장을 건립하는 계획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침묵할리 만무하다. 시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의 임기동안 발목 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분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의회가 결정한 주요 시정에 대하여 새로 취임한 시장이 힘이 있다고 하여 아집과 독선으로 그 결정을 뒤집어 버린다면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할 것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또한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꿈과 희망을 만들고자했던 진해지역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대화 없는 독선으로 화답하니 6.4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을 지지했던 수많은 진해사람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지지했던 서로를 불신하는 지경에 도달했다.

새 시장은 이제부터라도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 상생의 협력정신으로 돌아와 밝고 희망찬 창원의 앞날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의결...정영주 의원 발의



정영주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회

창원지역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린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맞춰 정영주 의원(반송·중앙·웅남동)이 발의한 ‘창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조례에는 창원시에 거주하고 일할 의욕·능력이 있는 노인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매년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 △비영리법인이나 관련기관·단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영주 의원은 “새로 조례가 제정된다 하여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더 손쉽게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면서도 마땅한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조례에 명시한 만큼 관련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고령 기술자의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과 택배수령·지역순찰 지원 등으로 노인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상인 의원(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이 발의한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창원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창원시는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기본 이념에 근거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시 정책을 타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를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 현장방문

창원단감테마공원 및 환경시설

언론보도
자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전수명) 소속의원 10명은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일 주남저수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창원단감테마공원과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을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

내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의창구 동읍 화양리에 조성중인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한 의원들은 단감농가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마산합포구 덕동에 있는 덕동하수처리장과 진해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등 창원지역 환경기초시설 5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각종 민원발생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운영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며 "앞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시설운영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구 및 검토해 시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와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및 어르신 예우 강화’ 조례 제정

제42회 정례회서 참전유공자 예우, 장수 노인 수당 인상안 가결
노인복지관·체육진흥센터 신축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처리

제42회 창원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1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입법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맞춤형 입법활동에 시동을 거는 등 제2대 의회 출범 후 첫 정례회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 관련 안건들을 놓고 각 상임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총26건의 상정 조례안, 승인의 건, 건의안 및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창원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경예산 2조 4,097억 원 대비 12.10% 증가한 2조7,012억 원(일반회계 1조9,253억 원, 특별회계 7,759억 원)을 확정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개정 조례안= 이번 정례회에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시의회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가 심사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시는 제안 설명에서 현재 평균 연령 84~8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 명예 수당을 인상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통합 이후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13년 9월 5만 원으로 올렸다.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 수당’ 지급 조례도 일부 변경됐다.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지급 조건은 현행 ‘수당신청 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장수 노인’에서 ‘2014년 10월1일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장수 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수 노인’으로 바뀌었다.

◆시립장사시설 운영 개정 조례안= 장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립화장장 사용료와 망자의 위패나 화상 등을 모시는 봉안료 인상을 담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사용자 기준 현행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대신 관외 사용자는 현행 50만 원으로 변함없다.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내·관외 사용자 구분이 뚜렷하다. 시는 관내 사용자의 봉안시설 사용료는 현행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렸다. 대신 관외 사용자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과 성산구 '성주복지회관', 진해구 '용원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담겨있다.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의 건은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복지관은 오는 2017년 완공 목표다. 성주복지회관 신축은 201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며 용원국민체육진흥센터도 오는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편의 관련 조례안=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에는 창원시에 거주하고 일할 의욕·능력이 있는 노인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창원시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유원석 의장은 "연일 숨가쁘게 진행된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해 준 소속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정 현안을 세심하게 다뤄 나가는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모색”... ‘도시발전연구회’ 출범

‘창원시 시설관리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도 출범 후 활동 들어가

“도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전문 지식을 갖춰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전 3개시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구청간 균형발전에 따른 저해요소를 찾아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도시발전연구회’가 최근 출범했다.

대표의원을 맡은 김순식 의원을 비롯해 강장순 강호상 박춘덕 정쌍학 이상인 김우돌 의원은 “도시발전의 핵심은 건축, 도로, 교통인데 한 번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도 힘들고 비용 손실도 엄청나기 때문에 의회가 사안을 좇아가려면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이어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진행 단계에서 장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어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진행 단계에서 장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연구회는 도시정책 및 발전 연구 자료를 수집해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주거 복지정책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각 구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모범적인 타 자치단체의 도시발전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연구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순식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통합 전 3개시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통합 창원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시설관리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창원시 시설관리물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검토할 연구단체인 ‘창원시 시설관리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가 지난달 출범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종대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삼모 김장하 손태화 김하용 송순호 공창섭 김현일 의원은 “창원시 위탁시설물에 대한 위탁운영·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주요 활동 목표로 삼았다”며 “위탁 수수료 등 시설관리물과 관련한 정책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연구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다음 달까지 △시설관리 공단 등 위탁시설물 현황 파악 △위탁시설물별 관리 시스템



점검·위탁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타 지자체 시설물 관리 자료파악·분석 △전문가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연구 활동에 매진할 방침이다.

김종대 대표의원은 “창원시가 시설물에 대해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과 병행하며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연구단체는 7명 이상 의원이 가입된 ‘등록신청서’와 연구과제,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연구단체는 시의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이 확정된다.

이처럼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 8월 출범한 ‘좋은조례 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와 ‘로컬푸드 연구회(대표의원 노창섭)’는 일찌감치 선진지 견학 등을 펼치며 다양한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의회, 진해드림파크 방문

선진화된 산림휴양시설 벤치마킹



강원도 철원군의회 배경인 의장 외 19명은 지난달 29일 선진화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진해드림파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은 진해특산물과 편백비누를 선물로 전달하며 방문일행을 따듯이 맞이했다.

철원군의회는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곳을 방문했지만 진해드림파크의 천혜 환경과 자연 친화적인 광석골 쉼터를 비롯해 자연치유숲인 편백숲, 진해만 생태숲 학습관의 실내 산림욕장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었다”며 부러워했다.

특히 방문단은 인기가 많은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목공예방과 체험놀이시설, 독서방, 수유실 등을 유심히 둘러보며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정보를 숙지했다.

진해드림파크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조성했으며 135만3,600㎡의 면적에 목재문화 체험장, 진해만 생태숲, 광석골 쉼터가 조성돼 창원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자전거도로 및 가로수 정책 진단을

2014. 10. 25 창원시보 제104호 게재

우리 창원시는 3개 시 통합 후 기존 출퇴근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구축돼 있어 자전거를 즐겨타는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자전거 10대 중 8~9대는 개인자전거가 아닌 공영 자전거 누비자일 정도로 시민들은 누비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누비자는 세계가 인정한 자전거다. 누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GPS기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365일 24시간 관리한다. 또 누비자 시행을 계기로 자전거 터미널과 보험, 근로자 출퇴근 수당 등 자전거 관련 선진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해 대한민국 공영자전거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보니 고유가 영향으로 직장인들의 출, 퇴근, 학생들의 등하교, 시민들의 가벼운 외출 등에 누비자가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누비자 정책에 따라 추진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설치 사업 중 문제점들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산구 상남·사파동 일대 자전거 도로 실태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창이대로 690번길, 사파동민원센터 간선도로, 사파 대동아파트 간선도로, 상남성당 사거리 주변 도로 등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인도가 가로수의 뿌리가 원인인지, 바람이 불어 뿌리가 흔들려 문제가 되는지 투스콘 포장에 깨지고 터지는 등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령이 오래된 일부 가로수의 경우 뿌리가 위로 솟아 있는 곳도 있고, 일부 구간은 땅 속 깊이 뿌리가 내리지 못해 바람의 영향 등으로 흔들리면서 도로포장용 투스콘이 터지고 깨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폭이 좁은 일부 구간은 뿌리가 원인인지 건물의 담장에 금이 가 있는 곳도 발견되었음은 물론 지금 당장 보수가 시급한 곳도 여러 곳 조사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전거 도로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가로수를 보존하는 방안과 변경하는 방안, 재보수가 용이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진단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이와 유사한 지역의 자전거 도로 투스콘 포장사업이 있다면 정밀조사 후 어떠한 시공이 적합한지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삼모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마산 영화 자료관’ 활성화에 대해

- 2014. 10. 10 창원시보 제103호 게재 -



이 옥 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마산종합운동장 내 마산문화원 귀퉁이에 자그마한 명함을 달고 작지만 소중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마산영화자료관’ 확장 이전을 제안한다.

‘마산영화자료관’은 지난 2007년 10월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출발했는데 이곳은 영화자료 수집가인 이승기 선생께서 70평생을 통해 모으신 귀중한 자료들로 꾸며져 있다.

이 영화자료관에 소장된 자료들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내용은 이미 2011년 8월 마산문화원의 의뢰로 유창국 경남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이자 경남영상위 부위원장을 책임 연구원으로, 한국영화 등급심의위원인 김정진 선생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필름 38편, 시나리오 51권, 포스터 3,436매, 홍보용 전단 5,704장, DVD 1,200편, 비디오 3,900편, 영화잡지 2,400권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희귀본인 1950년대 포스터가 총 436매, 1950년대 홍보용 전단만 총 444매 등으로 문화적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한다.

그동안 영화자료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소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기 감상회를 2007년 주 1회로 출발하여 현재 주3회 실시하고 있다. 마산영화자료관 소장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소장자료 자체도 타 지역인 ‘서울한국영상자료원, 부산한국영화자료원’ 등에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으며 오히려 문화관광장소로 만들어 문화장소 마케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자료와 역사가 지금처럼 대우를 못받게 놔둔다면 우리 스스로 문화적 문외한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 마산영화자료관이 있는 곳은 불편하고 좁기도 하지만 야구장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인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전 대상 지역으로 두 곳을 제안한다. 첫째는 현재 도심재생이 진행 중인 마산 창동과 부림시장 일대이다. 예전부터 창동은 중앙·강남·시민·연흥극장 등 영화관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현재 도심재생 선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면 재정적 부담과 장소 선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마산합포구에 있는 옛 헌병 분견소 자리이다. 역사적인 아픔과 함께 근대건조물로서 의미가 있는 그 자리에 근대문화유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영화 자료관이 들어선다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규모 면에서 상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활용도와 주민 친화감도 높아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마산영화자료관’에 대한 선부른 인식과 소홀한 대접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홀대했다는 평가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